



쇠고기(filet of beef:늑골과 등심 사이의 고기), 빵,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등 모두 감칠맛이 있었으니 아마도 이 여객선의 주방장은 국제수준급의 요리사인 듯 하였다.

저녁 식사후에 성균관대학에서 역사철학, 한국사와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는 윤명철 문학박사의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일본에는 新石器 時代 이후 歷史時代에 진입할 때까지의 先史 遺物이 우리 나라 것과 닮은 것이 너무 많아 일본은 이것을 빙자로 한국 남부의 지배설 소위 「任那日本附設」, 「神功說話」 등으로 우리 나라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였다고 한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역사 시대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한국인이 일본을 지배하였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이 탐방으로 한민족의 역사 유적과 문화 유물을 찾아 확인하여 왜곡된 일본의 역사 교육을 평가하고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이번 한민족 역사 탐방의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일본에는 고대 한반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신석기 문화가 있으며 일본인들은 이 문화를 조오몽(繩文:승문)문화라고 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5천년전에 시작하여 기원전 3~4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대의 유물로 여러 가지 토기 그릇과 인형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유물에 새끼줄 무늬(繩文)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오몽(繩文)문화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일본 여자들이 이를 뽑는 습관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자 무당이 집단을 지배하던 시기가 바로 조오몽 문화 시

대인 것이다.

다음에 야요이(彌生)문화가 등장한다. 지금부터 2300년전 큐슈(九州)지역에 있던 고도의 문화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1884년 동경의 야요이거리(彌生町)조개무덤에서 조몽시대와 다른 새로운 토기가 발견되면서 그 지명을 따 붙인 이름이 야요이 문화이다. 이 시대에 나오는 청동기 제품으로는 칼(銅劔), 창(銅槍), 요령(銅鐸)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칼과 창은 키타큐슈(北九州)를 중심으로 나타나 긴기(近畿:근기)지방까지 못 미치고 요령은 반대로 긴기지방을 중심으로 퍼져 있으나 키타큐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야요이 문화는 조오몽 문화 뒤에 갑자기 나타난 문화이다. 이것은 유물 분포가 서로 다른 집단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쪽은 키타큐슈 지역으로 또 한쪽은 긴기지역으로 진출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천지 개척에 필수였던 청동 칼이나 창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일본이라는 이름이 태어나기전의 일본 열도를 키타큐슈로 상륙하거나 또는 긴기지방으로부터 개척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심어나간 것이다.

이상이 船上 講義의 요점이었다. 비록 필자가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해보지만 우리 나라와 일본간의 고대 역사적인 관계에 관해 지나치게 무식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게 되었다.

波高와 風速이 4m이상인 대한 해협을 2만톤 급의 여객선이 18노트로 항해하고 있지만 선박의 搖動(요동)은 講師가 자연스럽게 서 있기 위해 강의 탁자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대단하였으나 필자는 그 동요를 크게 느낄 수가 없었으니 아마도 강의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모양이다.

동경대학 조교수인 山本武未가 쓴 「研究 日本史」에 의하면 일본의 청동기와 철기는 BC 3세기경 야오이식(彌生式) 토기와 전후하여 키타큐슈에 처음으로 청동기 및 철기가 나타난다. 초기의 것은 분명하게 중국 또는 조선반도 제였으나 이 중 수입품을 모방하여 일본에서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을 방제(倭製)라고 하였다. 이들 금속기는 긴기(近畿)내에서부터 중부지방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석기 문화는 우선 청동기 사용이 시작되어 상당기간이 지난후 철기의 사용이 시작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청동기와 철기의 출현은 거의 같은 시기였다. 청동기 문화를 거쳐 철기문화시대를 이미 경험한 중국의 선진문화가 조선반도 사람들에 의해 이 때에 일시에 일본에 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사가들도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키타큐슈나 긴기

지방으로 상륙하여 개척해 나간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선사시대에 우리 나라 문화가 일본을 지배하였다고 하지만 현재의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대열에 속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倭製 즉 남의 것을 모방하여 자기화하는데 노력을 다하여 이것을 기초로 더욱 향상된 자기의 것을 개발하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우리는 선조들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긍지를 갖고 보다 도약하는 문화형성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상 강의가 끝나고 225호 객실로 돌아가니 4명이 공동으로 취침할 수 있도록 2층 침대로 4개의 침상과 모포, 베개, 시트, 세면 도구 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중학교 교장과 농협 중역으로 停年을 한 두분과 만나게 되었다. 이들과 앞으로 6박 7일간 「일본 속의 한민족 역사 탐방」의 생활을 같이 하게 될 Room Mate가 된 셈이다.

